

백화점 상품권 할인율 어떻게 결정될까

광주지역 상품권 거래소 가보니

경기 나빠지면 할인율 높아져
수요와 공급·사용처도 영향
매입 4.5~5%·판매 2.5~3%
사용처 적은 제화권 25% 할인



백화점 상품권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사용처가 갈수록 늘고 있는 데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소폭이지만 상품권 거래소 등에서 액면가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그렇다면 백화점 상품권 할인율은 어떻게 결정될까?

지난달 29일 광주지역 상품권 거래소들에 따르면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기준으로 매입 시 4.5~5%의 할인율, 판매 시 2.5~3%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고객이 상품권 거래소에서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을 판매할 경우 9만5천원~9만7천500원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구매할 경우에는 9만7천원~9만7천500원이 필요하다.

백화점 상품권 할인율은 일단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수요가 많으면 내려가고, 공급이 많아지면 올라간다. 백화점 상품권별로 보면 신세계 상품권이 롯데보다 0.5% 정도 낮은 할인율로 거래된다. 신세계 상품권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이날 찾은 광주 한 상품권거래소는 신세계 상품권을 2.5% 할인율이 적용된 가격에 판매했다. 반면 롯데는 3%로,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다. 올 초까지만 해도 롯데상품권이 신세계보다 할인율이 낮았다.

신세계보다 사용처가 많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롯데면세점이 연가꾸 면세점 사업에서 탈락하고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인들의 선호가 떨어지면서 할인율이 역전됐다.

특히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거래소에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람이 많아져 구매자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아서 더 싸게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한 상품권거래소 관계자는 "경기가 안 좋

을수록 백화점 상품권을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반면, 구매력 저하와 현금으로 구매해야 하는 부담 등으로 수요는 낮아지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온라인 대형 상품권거래소에서는 백화점 상품권에 대해 지난 4월보다 1% 높아진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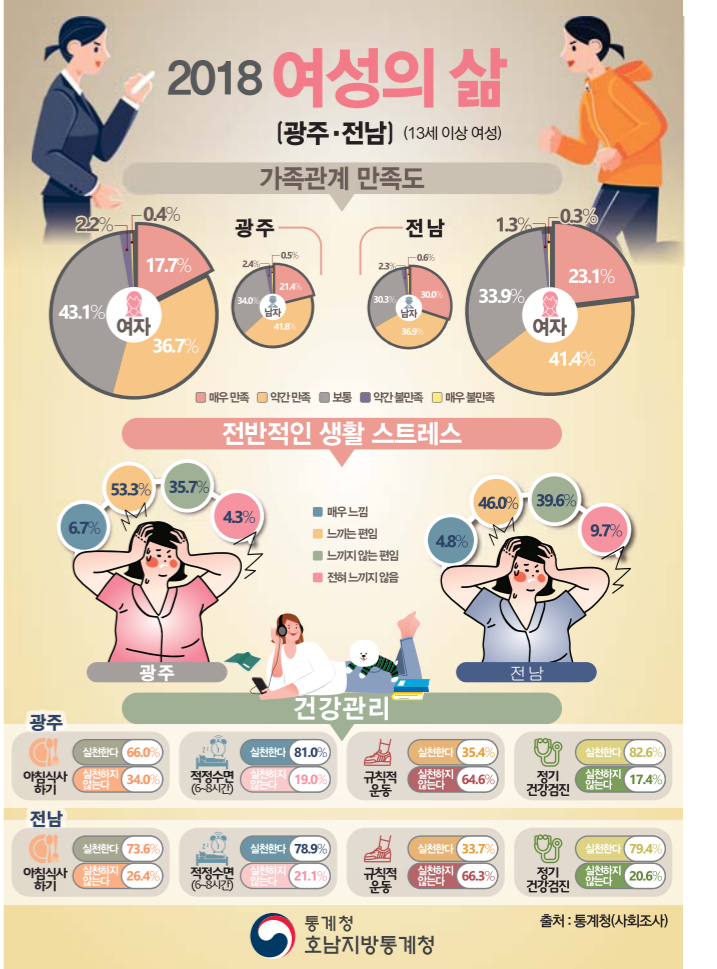
반면 명절 전이나 결혼 시즌에는 상품권 구입이 많아 구매자는 돈을 더 주고 상품권을 구매하게 된다. 하지만 명절이 끝나면 백화점 상품권 판매가 많아져 할인율이 높아진다.

이밖에 백화점 상품권과 달리 제화상품권은 25% 내외의 높은 할인율로 구입할 수 있다.

이는 제화업체가 선매 효과 등을 노린 마케팅 차원에서 높은 할인율로 공급한 탓이다. 또 사용처가 제한된 제품이 많아 수요가 많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이삼삼기자 seobi@srb.co.kr

본보와 호남통계청이 함께하는 '인포그래픽'



이마트 광주점, 고급화 매장 리뉴얼 오픈

'먹거리·프리미엄 가전' 확대
오는 4일까지 초특가 세일

이마트 광주점이 신선상품 선도 유지와 바닥, 조명 인테리어 변경 등을 통해 오감을 충족시키는 고급화 매장으로 리뉴얼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마트 광주점은 먼저 다양한 식음·델리 서비스 매장을 확대하고 상품을 추가 구성했다. 연어, 간장어묵, 불고기 등 14종의 다양한 토핑을 얹은 유부초밥과 오이, 단무지, 계란 등 원부재료를 한 개씩에 특별 양념소스를 가미한 말이김밥 9종이 기존 김밥과 차별화된 맛을 제공한다. 이어 간편요리와 식재료의 월드델리 28종을 추가로 확대

운영하며 중화요리 전문코너를 신설했다.

전기차 2종에 소형전기차 2종과 다목적 전기차 3종 등 총 9종의 전기차 판매 매장도 새롭게 구성했다.

㈜대풍EV전기차는 이마트 입점 기념행사로 이달 20일까지 10~30만원까지의 상품권 증정행사를 진행한다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다양한 프리미엄 가전이 뜨고 있는 가운데 가전매장도 새롭게 리뉴얼됐다. 65인치 이상 TV와 '올레드', 'QLED' TV의 매장진열 비율을 크게 높이고 미세먼지로 '필수 가전'이 되고 있는 대용량 건조기가 판매 모델도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이마트 광주점은 리뉴얼 오픈 기념행사로 오는 4일까지 초특가 행사를 진행한다.

도출기자 doulis18309@srb.co.kr



유기농 와인 선물하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와인매장에서는 추석 선물용으로 친환경 농법으로 만든 유기농 와인을 선보이고 있다. 엠 사푸티에 지공다스 유기농 와인은 프랑스 론 지방의 산지에서 잘 익은 포도로 만들어져 스파이시하면서도 편안한 느낌과 부드러운 맛이 있어 우리나라 명절 음식과도 잘 어울릴 수 있는 맛이다.

롯데백화점 제공

유탑 호텔,페이백 이벤트·가을 패키지 출시

가을 여행 주간과 한기위 추석을 맞아 유탑 호텔이 각종 이벤트와 패키지를 출시한다.

전 객실 오션뷰 테라스를 자랑하며 여수 엑스포역과 5분 거리에 위치한 '유탑 마리나 호텔 & 리조트'는 고객 감사에 보답하는 의미로 고객들의 풍장을 통 크게 채워주는 파격적인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9월 한 달 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호텔을 예약하는 고객에 한해 추첨을 통

해 예약 금액의 9배를 돌려주는 이벤트다.

가을 여행객들의 발길을 잡을 합리적인 가격의 패키지 2종도 선보인다. U캉스 조식 패키지는 호캉스를 즐기고 싶은 여행객을 위한 상품으로 오션 디럭스 트윈룸(최대 3인) 숙박과 함께 조식 2인과 세계 맥주 2병을 무료로 제공한다. 추석 명절 기간 유탑 호텔을 이용하면 푸짐한 경품 이벤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박석희기자 haita2000@srb.co.kr

'비스포크' 디자인 공모전 실시

삼성전자, 10월 4일까지 접수

삼성전자가 맞춤형 냉장고 '비스포크(BESPOKE) 디자인 공모전(#BESPOKE랑데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제품 타입과 도어 색상을 조합할 수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비스포크 디자인 공모전은 자신만의 개성과 취향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마련됐으며, 디자인 전문가에서 일반 소비자까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이 공모전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ProjectPrismDesignContest)을 통해 오는 10월4일까지 진행된다.

디자인 주제나 형식에 제약이 없어 참가자들은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펜화 등 자유자재로 디자인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삼성전자는 오는 10월9일부터 23일까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예선 통과 작품을 대상으로 공개 투표를 진행하고 파이널리스트 10명을 선정한다.

이중 우수 수상자 3명은 오는 11월14일 개최되는 공모전 시상식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최대 500만원의 상금, 밀라노 가구 박람회 초청과 비스포크 냉장고 등이 수여된다.

삼성전자는 대상 수상작을 비스포크 냉장고에 적용해 내년 4월 열리는 밀라노 가구 박람회에 전시하고, 추후 실제 판매를 검토할 계획이다.

양해순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상무는 "비스포크 냉장고는 색상·소재를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다는 혁신성으로 기존 제품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소비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비스포크가 '나만의 냉장고'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삼삼기자 seobi@srb.co.kr

대학로 스테디셀러 연극을 한자리에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

*학생단체 문의 : 1644-6755

명품코믹연극
죽여주는 이야기
무서울까 같지만 짝사랑.
웃다가 배아파 죽겠는 **빅뱅선사.**

2019.08.01.THU - 09.15.SUN

평일(화-금) 19:30, 토 15:00 / 19:00
일 15:00, 매주 월요일 휴무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
문의 | 1644-6755

연극
택시 안에서

웃음, 감동, 사랑이 시작되는
리얼타임 코믹연극

9.18 (수) - 12.29 (일)

공연시간
평일 7시30분 / 토요일 3시, 7시
일요일, 공휴일 3시 (월 공연없음)

문의 1644-6755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